

제30회 무역의 날 개최

—수출탑, 포상자 명단—

제3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김영삼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인사와 수출입유공자, 무역업계대표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대통령은 이날 치사를 통해 『정부는 수출증대 노력과 함께 수입자유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시장의 개방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기술혁신을 산업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연불수출금융과 수출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정부는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리 지가 물류비용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방법의 하나로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토지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품전시장을 마련하고 해외시장개척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수출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효성물산 원무현사장과 동미산업 김연호 회장 등 2명이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삼성전자는 50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밖에 금성전선 박원근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 금호셀화학 최규원 대표이사 등 3명이 동탑산업훈장, 대한펄프 최병민 대표이사 등 5명이 철탑산업훈장, 남화통상 윤인섭대표이사 등 6명이 석탑산업훈장을 각각 받았다.

다음은 이날 본회 회원사 포상자 명단이다.

◇ 수출탑 수상업체

△ 50억불 탑

삼성전자 대표 표 김 광 호

국제전선 대표 표 구 자 성
에프케이엘동화 대표 표 소 전 호 정

△ 5억불 탑

韓國아이비엠 대표 표 오 창 규

△ 1천만불 탑

카스팩전자 대표 표 조 경 호

△ 1억불 탑

三星휴렛팩커드 대표 표 존에이토플

비티씨코리아 대표 표 신 영 현

코리아데이터시스템 대표 표 고 석 영

고려전기 대표 표 이 기 룡

보암산업 대표 표 노 시 청

△ 5천만불 탑

뉴맥스 대표 표 정 강 환

△ 5백만불 탑

가야전자 대표 표 김 수 일

대덕전자 대표 표 김 정 식

동양화학공업 대표 표 권 석 명

△ 1백만불 탑

동원전자 대표 표 정 재 룡

한국광전자연구소 대표 표 중 오 광 화

두고전자 대표 표 고 대 수

◇ 수출 유공자

△ 동탑산업 훈장

한국광전자연구소 대표 표 중오곽화

△ 산업포장

두 고 전 자 대표이사 고 대 수

삼 주 전 기 대표이사 임 정 빈

비 티 씨 코 리 아 대표이사 신 영 현

금 성 사 부 장 박 영 룡

대 우 부 사 장 최 명 석

한 국 아 이 비 엠 대표이사 오 창 규

△ 대통령표창

삼 성 물 산 이 사 나 진 수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단 체

아 남 산 업 과 장 조 길 종

삼 성 항 공 산 업 부 장 이 상 목

△ 국무총리표창

한국소니전자부 장 최 순 호

금 성 일 력 트 론 전무이사 김 홍 식

대 우 전 자 전무이사 남 귀 현

한국광전자연구소 사 원 김 성 철

△ 상공자원부장관표창

가 야 전 자 대표이사 김 수 일

금 성 정 보 통 신 부 장 주 석 희

삼 성 휴 렛 팩 커 드 이 사 임 득 순

한 국 아 이 비 엠 과 장 이 홍 구

신 우 음 향 부 장 조 용 수

뉴 맥 스 차 장 한 기 화

에 프 케 이 엘 동 화 공 장 장 정 영 상

메 디 슨 부 장 정 만 을

지 원 산 업 계 장 김 기 진

한 국 트 라 콘 부 장 홍 문 호

제품 우수성 해외서

입증

(주) 금성사

금성사의 제품 우수성이 해외에서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금성사가 만든 VCR 일체형 TV인 TVCR(모델명 : GCV-1324M)이 미국의 영상기기 전문지 「오디오비디오」가 선정하는 올해의 최우수 제품에 뽑혔다.

또한 금성사의 카오디오(모델명 : TCC-320)도 독일 유수의 소비자정보지인 「아우토빌트」로부터 최우수제품으로 선정됐다.

「오디오비디오」지로부터 최우수제품으로 선정된 <GCV-1324M>은 금성사 멕시코 현지법인 GSMX가 생산해 미국에 시판하고 있는 14인치형 TVCR로, 「오디오비디오」지가 미국내 전국 판매상과 영상기기 분석가들로 투표인단을 구성해 영상 재현 능력·신뢰성·디자인·설계의 우수성·가격대비 성능 등 5개 항목에 걸쳐 비교시험한 결과 동사의 TVCR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제품으로 뽑혔다.

또한 금성사가 독일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카오디오 <TCC-320>은 「아우토빌트」지가 300마르크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카오디오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교시험한 결과, 방송수신도·음질·사용 편리성 등에서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아 최우수제품에 뽑혔다.

이번 비교시험에서는 독일의 켈하르트사가 2위를, 그룬디히사가 3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업체들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최초로 주파수
공용통신(TRS) 시스템 개발**
금성정보통신 (주)

금성정보통신(대표 : 정장호)은 국내 최초로 신방식 이동통신 장비인 주파수 공용통신 시스템(제품명 : STAREX-TRS)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동통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성정보통신이 국내 최초로 새로운 이동통신기술인 주파수 공용통신 시스템 및 단말기를 개발해, 새로운 이동통신장비의 수입 대체효과 및 통신시장의 개방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한정된 주파수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동통신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금성정보통신이 개발한 시스템은 크게 망교환기, 기지국장비, 단말기로 구성되며, 자가망은 물론 공중망 구축도 가능토록 확장이 용이해 경제성을 극대화했다.

주파수 공용통신 시스템(TRS)은 현재 한국 항만전화, 경찰청 등이 체신부로부터 채널을 할당받아 운용중에 있는 체신부는 이 시스템을 자가망뿐만 아니라 공중망으로까지 확대해 사업운용을 허가할 방침이다.

특히 금성의 STAREX-TRS는 기지국 장비 1랙당 예비채널을 포함해 6채널을 탑재할 수 있어 기존의 외국 제품보다 상당히 줄었고, 단말기는 차량장착은 물론 휴대도 할 수 있으며 무게도 480g으로 가볍게 설계돼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음성은 물론 데이터까지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 개별호출, 그룹호출, 일제호출 기능, 혼신감소, 소비전력 최소화, 배터리 사용시간 연장 등을 가능케 하는 출력제어기능 등이 있으며, 단말기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단말기의 도난, 분실, 변경시에 상당히 편리하다.

**영상 압축전송장치
(Video Codec)국내 첫 개발**
금성정보통신 (주)

금성정보통신(대표 : 정장호)은 동영상 및 음성신호를 압축하여 공중전화망을 통해 전송하고 수신단에서 복원하는 영상 압축전송장치 비디오 코덱(Video Codec)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비디오 코덱은 광대역 아날로그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고 이를 압축, 다중화하여 디지털 전송계를 통해 원격지로 전송하는 장치로 영상회의, 원격강의, 원격의료진단, 원격감시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장치이다.

이번에 금성정보통신이 개발한 비디오 코덱은 압축효율이 높고 전송속도가 다양해 경제적인 회선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품의 고집적화 등을 통해 기존 외국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상통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기업내 또는 기업간 정보교류 비용을

업·계·소·식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 제품은 4MHz 대역폭의 아날로그 동영상신호를 디지털하여 초당 최대 30프레임까지 압축하고, 4MHz 및 7KHz의 음성신호를 A-law나 U-law방식, ADPCM방식으로 각각 압출, 다중화하여 T1급(1.544Mbps)이하의 전송로를 통해 64Kbps에서부터 1.544Mbps까지 사용자가 지정하는 전송속도(Flexible T1)로 전송할 수 있어 보다 경제적인 회선운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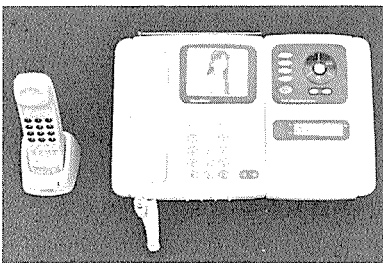
또한 이제품은 CCITT H.261 권고안 등 영상회의 국제표준에 근거해 개발되어 타사 제품과도 기본 동작에서 호환이 가능하므로 기존 시스템의 확장이 용이하며, Desk-Top 또는 Desk-Side형으로 이용이 가능해 설치가 간편하다.

유, 무선/통합리모콘 방식 홈오트메이션 시스템 개발 금성통신 (주)

금성통신(대표 : 백중영)은 유,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리모콘으로 가전기기, 도어폰 개폐기, 조명기기, 커튼 등을 제어할 수 있는 홈오트메이션 시스템(모델명 : 금성홈메이트 GH-310)을 개발하여 본격 수주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유, 무선 기능(별도 3대의 휴대장치 포함)으로 집안 어느곳에서나 국선/내선/도어폰/경비실 통화를 할 수 있는 가정통신망을 구축하였고, 통합 리모콘 제어 기능으로 TV, 비디오, 오디오 등 가전기기부터 조명의 ON/OFF 및 밝기제어 및 커튼제어, 도어폰개폐기 제어까지 조작이 가능하여 여러가지 리모콘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력선제어 방식 채택으로 별도의 배선공사가 필요없이 전원콘센트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첨단제품이다.

주요기능으로는 일반전화기에 모니터기능이 장착되어 있어 카메라를 통한 방문객 확인 및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문객 확인 기능, 각 입주세대마다 별도의 배선이 필요한 기존 Star형 방식 뿐만 아니라 중앙배선 하나를 모든세대가 공유하는 Bus형 교환시스템 방식을 함께 채택한 Star/Bus형 겸용교환시스템 기능, 방법/화재/가스감지 및 비상경보 등 이상상태 확인 및 위급사항을 사전에 방지해주는 첨단 안전기능 등 편리한 기능이 장착된 경제적인 제품이다.



PCB전제품 ISO인증 획득 금성통신 (주)

금성통신(대표 백중영)은 지난 11월 5일 ISO규격 창안기관인 영국 BSI(공업표준기관)으로부터 단면/양면/다층 등 PCB전제품에 대해 ISO 9002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에 금성통신의 ISO인증획득은 일부업체들의 한종류의 PCB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것과는 달리 PCB전제품에 대해 ISO인증을 받음으로써 PCB제조에서 검사 및 시험, 판매에 걸쳐 전공정에 이르는 품질

업 · 계 · 소 · 식

보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인증획득후에도 품질보증시스템의 유지관리상태에 대해 매년 2회이상 BSI의 사후심사를 받게 됨으로 국내의 고객들의 신뢰성이 한층 더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금성통신은 신공법개발 및 극소경/고밀도/고다층 박판 PCB개발을 위한 연구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고부가가치제품 생산라인 증설과 수익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하면서 PCB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같은 과감한 투자와 전사원의 적극적인 생산성 향상운동으로 매출도 전년대비 48%의 신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ISO인증획득을 계기로 기존 60개국 수출지역에서 중남미 및 동구권 지역에 추가로 진출, 70여개국으로 수출지역을 확대하여 내년도에는 40% 이상의 매출신장을 계획하고 있다.

카 오디오 개발

동국종합전자 (주)

동국종합전자가 프로그램 내용식별기능과 방송국간의 교통정보교환기능을 가진 카오디오(모델명 CR-3560)를 개발, 다음달부터 유럽 전역에 본격 수출할 계획이다.

동사가 이번에 개발한 카오디오는 RDS(라디오 데이터 시스템)방식으로 유럽수출용으로 개발됐으며 도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채용돼 있다.

이 회사는 「CR-3560」모델을 다음달부터 본격 양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현재 유럽지역 등으로 수출하는 카오디오 8개모델을 첨단 기능을 지닌 이제품이나 카CDP로 교체해나갈 방침이다.

페테르스부르크에

가전전시장 설립

대우전자 (주)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최근 페테르스부르크 변화가인 시내중심가에 전시매장 50평, 창고 50평 등 총 150평 규모로 가전제품 상설판매 전시장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상설판매 전시장은 칼라TV, VCR, 전자렌지, 오디오 등 주력제품을 대우브랜드로 판매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는 한편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작동해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고 전문 A/S요원을 채용하여 직접 현지에서 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앞서 대우전자는 지난달 6일부터 11월 3일까지 현지 서비스요원을 초빙하여 교육연수를 시행하였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직영 A/S센터를 운영하는 등 종합 서비스망 확립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제품 판매를 위해 페테르스부르크 시내에 네바(Neva)강변의 대형사인을 비롯해 빌보드, 버스광고 등 옥외광고를 실시하고 이를 확대하는 한편, 이번 상설전시판매장 외에도 직영매장을 늘리고 대리점을 확대, CIP지원 및 판촉지원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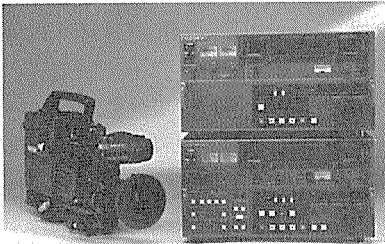
**일 SONY와 방송장비
기술제휴**
대우전자

대우전자는 방송설비중 핵심장비인 방송용 VCR 및 카메라 기술도입에 관해 소니와 약 1년간 협상을 벌인 결과 최근 베타캠(Betacam) 방식의 녹화기 1종 및 재생기 2종, 카메라 및 장착형 녹화기로 구성되는 분리형 캠코더 1기종 등 총 5기종의 기술협력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현재 로열티에 관한 최종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정식계약은 다음달 중순경 체결할 예정이며, 정부로부터 기술도입승인절차도 빠른 시일내에 끝나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대우전자가 소니로부터 도입하게 되는 방송용 VCR 및 카메라는 고정도 3CCD, 고정밀 메카니즘, 콤포넌트 신호처리 등 첨단기술이 집적된 제품으로 가정용 VCR 및 캠코더 등 관련기술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기존 방송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베타캠방식으로 화질 및 성능이 뛰어난 것은 물론, 디지털 VCR 및 디지털 영상압축기술 등 미래첨단제품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전자는 내년 상반기 생산을 목표로 구미공장에 이들 제품 전용생산라인 설치를 거의 완료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제품설계 및 제조, 생산기술을 국산화한다는 방침으로 종합유선방송이 본격 시작되는 '95년 30%, '96년 50% 등 국산화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KEIT)와 공동으로 CATV에 필수적인 가입자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4화면 분할기를 자체개발하는 등 방송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서 광케이블
생산**
대한전선 (주)

대한전선이 중국에서 광케이블을 생산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중국 북경에 건설중인 통신선공장에 건설중인 통신선공장을 내년말 완공, 광케이블을 현지에서 생산키로 했다.

대한전선은 우선 국내에서 광케이블을 연1만 파이버km씩 공급해 현지 통신선시설에서 케이블을 생산하고 점차 물량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또 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광케이블은 전량 중국 내수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PCI버스 SCSI 486PC
국내 첫 개발**

대우통신(대표 : 박성규)은 최근 차세대 로컬버스의 표준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버스에 PCI방식

대우통신 (주)

의 SCSI(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기능까지 갖춘 486PC(모델명 : CPC-2100P)를 국내처음으로 개발했다.

이번에 대우통신이 개발한 PCI로컬버스 SCSI 486PC는 기존의 제품이 SCSI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별도의 카드를 ISA방식의 여유슬롯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형태인 것과는 달리 마더보드상에 32비트 PCI버스의 SCSI컨트롤러칩(NCR 53C810)을 내장하고 250MB의 SCSI드라이브를 기본으로 장착해, 전송속도가 기본 AT버스방식의 IDE 보다는 최대 10배, 배사로컬버스 방식의 IDE컨트롤러 보다는 최대 3배까지 빨라, 윈도우즈 사용시 배사로컬 방식 및 ISA SCSI 방식보다 강력한 윈도우즈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제품은 PCI기능 구현을 위해 인텔의 새턴칩세트를 사용하였으며, CPU는 80486DX-250MHz를 기본으로 장착하였고 80486DX2-66MHz 및 펜티엄 오버드라이브 프로세서까지 확장할 수 있다. 메모리는 윈도우즈 NT 및 UNIX, OS/2 등 다양한 운영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는데 충분하도록 8MB의 용량이 기본 내장되어 있으며 메인보드 상에서 72핀 SIMN모듈을 이용해 최대 128MB까지 확장할 수 있다.

우즈베크공화국 TDX
엔지니어 합숙교육 실시
대우통신 (주)

대우통신(대표 : 박성규)은 자사와 Fax수출계약을 체결한 우즈베크공화국에서 교환기 운용 및 유지보수를 수행할 엔지니어 23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자사 소래연수원에서 교환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우통신은 지난 4월 우즈베크공화국의 카밀잔 라히모프(Kamildjan R. Rakhimov) 체신부장관의 전자교환기(TDX)5만 회선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대우통신은 이번에 수출할 교환기 물량의 생산을 마치고 이달말 선적을 기다리며 마무리 시험을 진행중에 있다. 선적된 물량은 우즈베크공화국의 산업 요충지인 페르가나 지역에서 내년 7월까지 설치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우통신은 우즈베크공화국 엔지니어들에게 내년 2월까지 계속되는 4개월간의 교육일정을 위해 4개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 제1코스는 기본 및 보수과정이며 제2코스는 고급과정으로 TDX의 응용기술에 관한 교육이다. 다음은 설치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운용 및 유지보수코스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고품질
팩시밀리 개발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가 자체 개발에 성공한 세계 최고수준의 팩시밀리 고품질 화상처리칩인 TIP(Thinking Image Process)을 채용한 고성능 팩시밀리 개발(모델명 : STAFF'8)에 성공하여 11월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팩시밀리의 화질과 전송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이 제품은 G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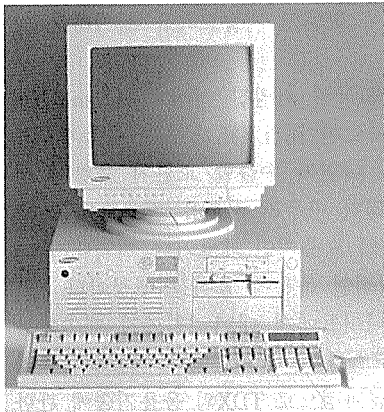
팩시밀리의 취약점인 글자가 섞여있는 사진원고 전송시 문자영역과 사진영역을 Fuzzy로 각 영역의 특성에 따라 부호화함으로써 화질은 대폭 개선되면서도 전송속도는 기존 팩시밀리보다 3~10배나 향상시켰으며, 송신원고를 기존 팩시밀리의 4배수준인 64단계로 구분하여 줌으로서 G₃감열 팩시밀리에서는 세계최고 수준인 400DPI 해상도로 화상을 처리한다.



이 제품에 내장되어 있는 TIP은 1초에 1,200만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최첨단 반도체인 DSP(Digital Signal Process)로서 세계 최초로 상대방측에서 표준모드로 원고를 송신할 경우에도 화질을 개선시켜 선명한 원고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인간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밝기와 동등하게 하여 화질을 개선하여 살아있는 듯한 선명한 화질을 보낸다.

**초절전형 그린이지
(Easy)컴퓨터 개발**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가 순수 독자기술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초절전' 'EASY' '환경보호' '인간건강'의 개념을 완벽히 실현한 그린컴퓨터II(모델명: SPC-7500P)5개모델 개발에 성공하여 11월 15일 美 Lasvegas에서 개최되는 Comdex Fall에 출품하고 국내시판 및 수출에 들어갔다.



컴퓨터 초보자도 손쉽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컴퓨터 전원을 켜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윈도우(Instnt Ignition Windows)에 그림으로 설정되어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생활 S/W인 가정용 홈백과의 윈도우즈용 워드프로세서 최신버전인 훈민정음 2.0 등과 같은 7개의 주요 S/W를 기본으로 탑재한 국내 최초의 최신형 'Easy 컴퓨터'이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단순히 모니터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여 소비전력을 절감하던 방법에서 더욱 진일보한 이 제품은 전 모델에 인텔의 저전력형 CPU를 채용하여 CPU의 전력을 최대 20% 까지 절감하였고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PMS(Power Management System)를 'HDD' '모니터' 등 모든 시스템에 채용함으로써 완벽한 '결전'을 구현하였다.

세계최초 Bio TV
개발성공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신제품 설명회를 통해서 세계최초로 환경과 건설을 추구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바이오TV는 전세계적으로 효능이 인정된 원시외륙을 응용한 것으로 환경과 생활에 대한 높아가는 소비자 인식에 부응하는 새로운 개념의 영상정보 전달매체로서 TV의 기술을 한차원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전자가 12월부터 선보이게 될 바이오TV는 현재의 TV가 고화

질, 고음질, 대화면을 놓고 제품력의 우열을 가리고 있으나 선진국이 고선명(HD)TV로시대로의 길을 재촉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술상의 격차가 미세해지고 있어 영상 분야에 건강 기능을 적용한 아이디어만으로 주목받기에 충분한 신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세계시장에서 동일한 화질, 음질이 확보된다면 영상분야 제품으로서는 획기적인 '건강'이라는 신개념 적용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확신하고 90년초부터 만 4년여에 걸쳐 삼성전관과 공동으로 바이오 TV개발을 추진해왔다.

200인치 고화질(HD)

프로젝션TV 개발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대표 : 김광호)는 고화질(HD)브라운관 3개를 사용해 대화면, 초고화질 영상을 200인치 스크린에 표현해주는 전면 투사형의 고화질(HD) 프로젝션TV(모델명 : SVP-2000)개발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이 100인치에서 200인치까지 화면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고화질 프로젝션 TV로서 영상분야의 대변혁인 HDTV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수평해상도 1000본의 고화질 영상처리 기술 및 초대형 화면 재생기술을 국내최초로 독자개발해 우리나라의 고화질 영상제품 기술력을 전세계에 과시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HD-CRT(브라운관)채용 프로젝션 TV는 현재의 NTSC 일반방송을 받아 이를 내부회로기술로 주사선을 2배로 늘려 화질을 대폭 개선했고, 향후 본격화될 HDTV방송신호를 재생함은 물론 컴퓨터 그래픽 및 CAD까지 여러 입력신호를 디지털로 처리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의 호환성 등을 갖춘 멀티미디어 TV이다.

현재 CRT를 채용한 TV의 대형화가 36인치 와이드TV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크기와 무게 등에서 냉장고와 같아짐으로써 가정용 영상 제품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기술로 제안되고 있는 프로젝션 TV는 벽면스크린에 200인치까지 대화면화가 가능하면서도 무게와 크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차세대 TV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 생산비중 확대

삼주전기 (주)

휴즈생산업체인 삼주전기(대표 임정빈)가 해외생산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중국 하문공장과 몰타공장이 시험생산을 거쳐 정상가동에 들어가 해외생산비중이 국내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중국공장과 몰타공장의 생산능력은 각각 월300만개와 200만개로 기존 필리핀공장의 400만개를 포함, 3개 해외공장의 생산이 월 900만개에 달해 국내의 500만개 생산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해외공장에서 생산되는 휴즈는 현지판매와 제3국 수출을 병행하며

업 · 계 · 소 · 식

일부는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회사측은 내년에 해외생산기지에서만 연간 1,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주전기는 지난 90년부터 해외생산기지 구축에 나서 지난해 필리핀공장을 가동한데 이어 중국과 몰타공장으로 확대했다.

키보드 개발

세진전자 (주)

세진전자(대표 이상영)가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매킨토시용 키보드「맥」과 IBM용 101 키보드를 집적시킨 미니키보드를 집적시킨 미니키보드「미니」등 키보드 2종을 개발, 12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세진이 자체 기술로 총 2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매킨토시용 키보드「맥」은 이미 미국 애플사로부터 품질 인증까지 받았는데 국내에 공급중인 매킨토시용 키보드는 전량 수입품이다.

또 데스크톱용 101키보드의 모든 기능을 86키로 집적시킨 노트북 컴퓨터 크기의 소형키보드「미니」는 경박단소형이다.

처라II SX 등 2가지 모델로 구성된 이 제품은 화면해상도가 5백12×384픽셀에서 1,152×870픽셀까지 지원, 사용자가 자신의 업무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해상도를 선택, 사용할 수 있다.

또 확장성을 고려한 이더넷 업그레이드 커넥터를 포함, 쉽게 이더넷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등 비용과 하나의 확장슬롯을 절약할 수 있다.

무선전화기 사업 본격화

태광산업 (주)

태광산업(대표 이기화)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추진해온 무선전화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최근 9만 9,000원대의 무선전화기를 개발, 본격 시판에 나선데 이어 내년도 무선전화기 부문의 매출목표를 100억원으로 잡고 최근 자사 무선전화기의 판매를 전담할 총판점 모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태광산업은 이에 따라 서울·부산 등 전국에 전화기 도매상을 중심으로 5개의 총판점을 확보한데 이어 연말까지 전국에 자사 오디오 대리점과는 별도로 시·도단위로 총판점을 확보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특히 내년부터 무선전화기의 판매를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광고판촉활동을 집중전개, 내년도에 자사 내수부문 매출목표를 올해비 19%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국제화 적극추진

미원 그룹계열의 미원유화(대표이사 이덕림)이 올초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국제화 전략에서 점차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스티렌계업계 최초로
1억불탑 수상
(주) 미원유화**

11월 30일 개최된 무역의 날에서 스티렌계 업체로는 국내 최초로 수출 1억불탑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미원유화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신정부의 기본 정책중의 하나가 대외지향일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93년 경영목표를 '국제화 지향'으로 결정하였으며, 올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능력을 강화시켜 7월에 중국 Sinopec사에 국내석유화학 Plant수출사상 최대규모인 450만불의 ABS 제조기술을 수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동사의 해외마케팅 활동은 대부분의 유화업체가 국내 공급과잉에 따른 가동률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주로 동남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수익성과 국제화를 추구하고 미, 구, 오세아니아, 중동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고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통해 Buyer 관리에 역점을 두는 정책이었다.

품질관리대상, 장영실상, 연구개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동사는 이러한 활동 결과로 올해들어 해외시장에의 지명도가 높아졌고, 신규 Buyer에 의한 주문량도 27% 증가하였으며, 또한 동업계의 스티렌계 제품의 평균 수출증가율 11%를 훨씬 초과하는 20%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향후 동사의 국제화전략 추진방향은 최근 상품화에 성공한 첨단수지인 하나세란과 초내열성수지인 HGX수지, 가전용 고품택 수지, 자동차용 무광택 수지, 냉장고 및 냉동창고용 내HCFC수지 등을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여 수출하고, 썩는 스티로폴도 조기 상품화하여 제품 수출을 향후 확대하며, 잠재적 성장성이 큰 해외지역에 대해서는 기술수출 및 현지법인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해외에서의 신규사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11월 29일 개최된 동사의 임시주총에서는 회사명을 (주) 미원유화로 변경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그룹의 CI를 통일시켜 해외시장에서 보다 잘 알려진 미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스피커 내수 진출
한국전자부품 (주)**

스피커시스템 전문업체인 한국전자부품(대표 김용호)이 자체 브랜드를 내세워 내수 판매에 나선다.

이 회사는 최근 단란주점용 노래방 스피커를 중심으로 내수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지금까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공급에서 탈피, KEP라는 자체 브랜드로 시판영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한국전자부품은 2개모델(SHW-1014, SRS-82)을 새로 내놨고 2억여원을 투자해 설비도 확충했다.

이 회사가 선보인 SRS-82는 노래방과 단란주점전용 스피커로 마이크음의 재현 감응도가 뛰어나 노래부르기가 편안하고 LDP CDG 컴퓨터반주기등 어떠한 기종에도 무리없이 적용하는 전천후 매칭기

능이 특징이다.

또 홈 하이파이 및 가정용 노래방기기를 겨냥한 SHW-1014는 기존 스피커시스템의 우퍼(저음)대역에 초저음 전용의 서브우퍼를 추가해 중고음의 선명도와 저음부의 웅장함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이 모델은 일반 하이파 스피커시스템에 비해 소형이고 3부분으로 분리돼 있어 설치공간의 제약을 받지않는다.

한국전자부품은 이와함께 스피커시스템의 디자인 보장을 위해 최근 2억 3,000만원을 들여 곡면절단용 UV커터기와 NC루터기도 도입했다.

이 회사는 내년 독자브랜드를 통해 월 5억여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워크스테이션용 이온프린터
개발 및 시판**
현대전자산업 (주)

현대전자(대표 : 정몽헌)는 워크스테이션이 확대보급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이 온그라피 방식의 워크스테이션 전용 프린터(모델명 : 액실프린터, Axilprinter)를 개발, 11월 중순부터 시판에 들어간다.

이번에 시판에 들어가는 워크스테이션용 액실프린터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대량인쇄에 적합한 제품으로 분당 20장(A4용지)의 초고속 인쇄와 300DPI(Dot Per Inch)의 고해상도, 최대 1,500장까지의 대용량 급지, 양면인쇄(선택사양)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미지의 왜곡없이 자유자재로 글자의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

동제품은 접속방식으로 비데오 인터페이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의 접속방식(패러럴/시리얼인터페이스)보다 데이터 송출속도가 월등히 향상되었으며, 프린트시에도 호스트 컴퓨터에 입력된 명령에 따라 프린터가 출력상태를 자동감지하여 출력하므로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양면인쇄 기능을 채용할 수 있어서 간이 DTP(Desk Top Publishing), DM작성, CAD/CAM 등에 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자동 배치 기능이 있어서 쏘터(Sorter Stacker)를 이용하면 10개의 개별적 구역에 출력물을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액실프린터는 이온그라피(Electron Beam Imaging)방식의 프린터로 신뢰성/내구성면에서 레이저 프린터보다 우수하며 토너의 수명도 국내최장 사용시간인 2만 5,000장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